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4호

봄

2015. 3. 12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이종찬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창립 10주년 2015년도 기념사업회 정기총회 개최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3월 5일(목) 오전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우당기념관에서 기념사업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문준진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한 총회에서는 홍성덕 상임이사가 창립 10주년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종찬 이사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였다. (경과보고 2면)

이 이사장은 “10년 전 창립할 당시 만 하더라도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과 민족정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오해가 만연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노력하여 장군의 무장투쟁 업적과 사상을 현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 동안 기념사업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미자 구의원, 이길자 회장 신규 이사로 선출

학회 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출하여, 이날 참석한 이미자 이사에게는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또한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15년도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봉오동전투 전승 95주년 행사 중국 봉오동전투 현장에서 개최

한편 봉오동전투 전승 95주년 행사는 봉오동전투 현장인 길림성 도문시 수남촌에서 오는 6월 5일 우리 기념

사업회와 조선족기업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 행사로 조선족 예술단의 민속 공연과 조선족 집단 거주지인 수남촌의 마을 잔치, 그리고 우등불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세 내용 2면)

기념사업회 2005년 2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초대 이사장 이종찬 원장 선출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10년 전인 2005년 2월 25일,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장군의 사상인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실천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하였다. 당시 창립 이사장으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선출하고 3월 3일 국가보훈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창립 이후 매년 6월 7일에는 장군께서 주도하신 봉오동전투 전승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모일인 10월 25일에는 추모식과 더불어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8월에는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대적으로 임원을 개편하여 이종찬 이사장이 유임하고 홍성덕 상임이사, 문준진 사무총장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봉오동 전승행사는 재향군인회, 광복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질적으로 격상되었고, 추모행사에는 본격적인 학술회의와 겸하여 시행하여 학계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2013년에는 제70주년 추모행사를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장군께서 순국하여 안장되어 있는 카자흐스탄을 찾아가서 현지 고려인협회와 독립유공자후손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거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추모식을 갖고 학술회의와 홍범도 연극을 재연하고, 크즐오르다에 있는 장군의 묘지를 참배하였다.

2014년에는 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고, 6월 1일에는 계간으로 회보 “날으는 홍범도 장군”을 창간하였다.

봉오동전투 전승 95주년행사, 중국측과 전투현장 개최 협의

봉오동전투 전승 제95주년 행사는 오는 6월 5일 중국 길림성 도문시 봉오동 전투현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10일 행사 협의차 방문한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박경식 상임부회장과 곽승지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와 홍성덕 상임이사, 황원섭 이사, 문준진 사무총장의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사진행 계획을 검토하였다.

행사 참가단은 3박4일 일정으로 6월 5일 출국하여 당일 오후 봉오동 수남촌 광장에서 현지 조선족 단체와 공동으로 기념식과 민속공연을 갖고, 조선족 집단 거주지인 수남촌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잔치를 한 다음, 우등불 놀이를 하도록 했다. 이틀째 날에는 청산리 전투 현장 등 연길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 하고 셋째 날에는 백두산을 등정하고 다음날 귀국하게 된다.



〈곽승지 교수, 박경식 부회장〉

연세대학교 사학과, 연변대학교와 홍범도장군 워크숍 추진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는 오는 8월 18일 연변대학교 역사학과와 공동으로 대학원생 워크숍과 연변지역 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워크숍의 주제 중에 홍범도장군의 독립군 활동에 관한 소주제가 있으며, 연변대학교 측에서 홍범도장군의 만주

지역 독립운동과 봉오동전투의 전개과정, 조선족 무장투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홍범도장군 소주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념사업회 신효승 국장이 담당하여 진행한다.

기념사업회 창립 10주년에 부쳐

이 종 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회는 지난 2005년 2월 25일에 뜻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설립하여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10년 전 장군의 빛나는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민족운동의 분수령이 될 것을 다짐했고, 장군의 염원인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장군의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실천을 목표로 창립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창립 당시만 하더라도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사상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잊혀져가는 분이었습니다. 장군께서는 후손이나 가까운 혈족이 없고,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돌볼 유족이나 측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6·25 전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반공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자로 오해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기념사업회는 장군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2005년 6월 7일, 봉오동전투 전승 85주년을 맞아 승전 이후 처음으로 보훈처 후원으로 공식 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년 전승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학계의 도움으로 봉오동전투의 역사적인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전쟁 사상 일본 정규전과 싸워 엄청난 전과를 올린 최초의 승전

이었으며, 우리 독립군의 사기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자주 독립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매년 10월 25일에는 추모행사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서거 7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최초의 추모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고려인협회와 독립유공자후손회와 공동으로 현지 고려인들과 함께 추모식과 한국·카자흐스탄 학자들이 참여한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장군께서 생존시에 직접 관람하셨던 “연극 홍범도”를 71년 만에 재연하는 감동도 맛보았습니다.

또한 장군께서 잠들어 계시는 크즐오르다 장군 묘역을 참배하면서 지역관리 타향에 계시는 장군님께 고국에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모든 방문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범도장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말 공산권이 몰락하고, 1990년대 초 중국, 러시아 등과 수교 후 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금은 장군의 업적이 상당부분 드러났습니다. 장군께서는 1895년 을미의병에서부터 시작하여 의병투쟁을 하고, 의병부대를 독립군으로 발전시킨 주역이었으며,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최고지휘관이었습니다. 특히 신용하 교수와 박창욱 교수의 연구와 당시 전황과 일제의 정보 기록을 종합하여 홍 장군이 청산리전투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이 대중적으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우리 기념사업회가 해야 될 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는 6월 제95주년 봉오동 전승행사는 중국 봉오동 현지에서 조선족들과 함께 개최하기로 하여 장군의 업적을 중국에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청산리전투에서의 홍 장군의 주도역할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앞으로 청산리 승전행사를 우리 사업회에서 담당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 장군의 독립운동정신을 선양하여 국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심혈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한겨레 35면 오피니언〉

[시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서둘러야

황 원 섭(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오는 25일은 홍범도 장군께서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하신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옛 소련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서거한 것이다.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되는데 조국 광복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장군의 유해를 아직도 조국으로 모시지 못한 심정은 비통할 뿐이다.

홍범도 장군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머슴 출신이었지만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친 분이다.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여 발단이 된 을미의병에서부터 의병활동을 시작하여 의병을 독립군으로 발전시킨 주역이다. 특히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최초의 승전을 거둔 봉오동전투를 주도하여 독립군의 사기를 높였고 국민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한 청산리전투는 세계 피압박민족 해방투쟁사에서 우뚝한 성과로 빛나고 있다. 홍범도 장군은 탁월한 지도력과 치밀한 유격전술로 병력과 장비가 우세한 일본군을 섬멸하여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설적인 영웅'이었다.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로를 인정하여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지만, 과란만장한 생애와 독립운동 업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한때 러시아 홍군에 편입되었고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항일지도자 이동휘와 함께 레닌과 회담하고 독립자금을 받았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로 분류하여 외면하였다. 청산리전투를 왜곡하여 그의 공로를 폄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만주지역의 무장투쟁을 학계에서 연구하고, 청산리전투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이

뤄지면서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전투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독립군 부대의 생존과 동지들의 안전을 위해 홍군에 편입하고 공산당에도 입당했지만, 결코 공산주의자는 아니며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2005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추모식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고려인 단체와 정부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추모행사를 열었다.

홍범도 장군의 71주기 추모식을 맞아 못내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의 업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했을 때 그곳 고려인들은 비록 공동묘지이지만 장군의 묘역을 아담하고 품위있게 조성하여 추모 공간을 마련하였다.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당국에서는 '홍범도 거리'를 조성하여 장군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중국 봉오동전투 현장에는 투먼시 당국에서 '봉오골 전투 전승지'라는 기념비를 세워 조선족은 물론 중국인들도 장군을 존경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는 홍범도 장군을 추모하고 그분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려는 아무런 기념물이 없어 부끄럽기만 하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에서 장군에 대한 추모사업은 물론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애국자들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국민적인 사표로 삼고 있다. 장군은 아직도 이역만리에 외롭게 방치되어 있으니 국가적인 수치이며 국민적인 불명예다. 아직도 장군의 업적을 폄하했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모두를 역사적인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장군은 남북한에서 함께 존경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로, 앞으로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입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유해 봉환은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한국의 유산, 홍범도 장군

〈KBS 1 TV, 2012. 2. 26~3. 4〉

홍범도!

고난 속에서도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1990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고국에 알려진 한 독립투사의 일지(日誌)

일지의 주인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대승의 주역인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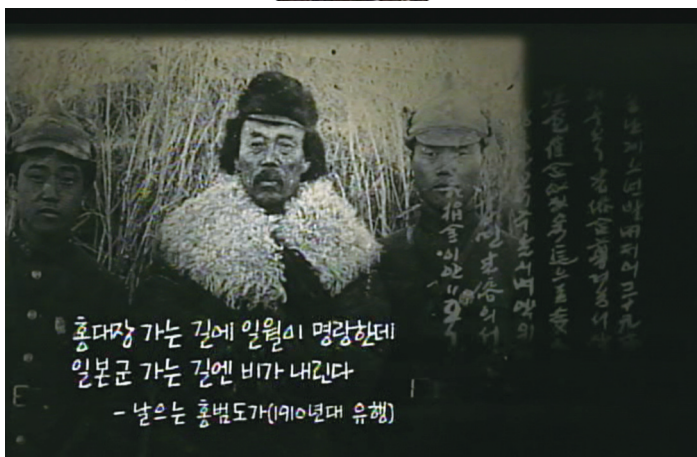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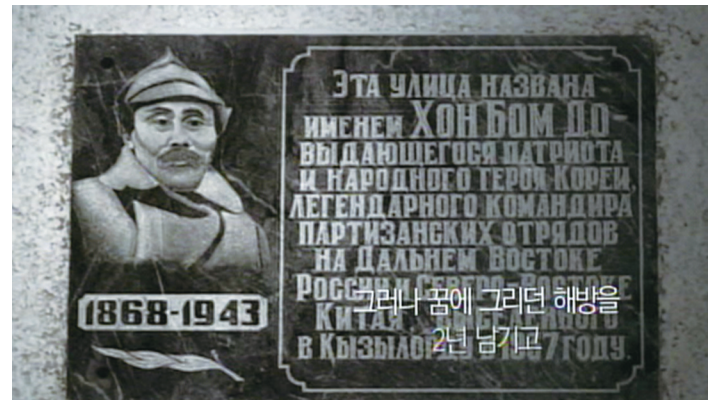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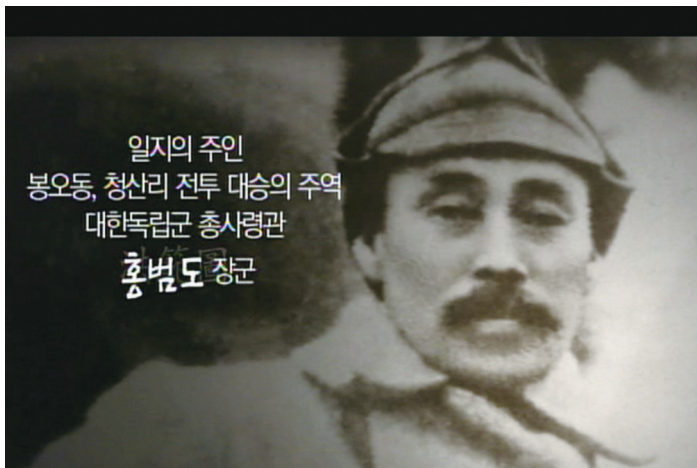
“일병 103명이 내 처와 아들을 잡아가 내 행방을 물으려

반죽음을 시켜도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1908년 2월 18일)

“정평에서 50명 일병과 싸워 의병 여섯과 중대장이던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1908년 5월 18일)

함께하던 두 아들과 아내 마저 잃어야 했던 고난의 독립투쟁

그러나 꿈에 그리던 해방을 2년 앞두고 타국 땅에 쓸쓸히 죽음을 맞다.



〈여천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창립대회에 보내는 헌시〉

홍 범 도



이 동 순(시인, 영남대 교수, 민족서사시 홍범도 전 10권 저자)

일찍이 소년시절

군대에 들어가 나팔 불었던 사람

그러나 썩은 군대 흠씬 두들겨 패고

천리만리 달아나 짐승처럼 포효하던 사람

쫓기는 몸으로 산중에 들어가 머리 깎고 중이 되었던 사람

그 절에서 만난 비구니 스님과 혼인하여

아들을 들이나 낳았던 사람

백두산 밀림 뛰어다니며 사냥하던 사람

가진 총 안 빼앗기려고

다른 벗들과 힘 합쳐 왜놈부대 쳐부수었던 사람

급기야 짐승 사냥에서 왜놈 사냥으로 바꿀 것을 결심했던 사람

함경도 북부 산악지역 펄펄 날아다니며

악질 매국노와 왜놈부대 보는 족족 박살내었던 사람

오죽하면 일본군도 '날개 달린 비(飛)장군'으로 별별 떨었던 사람

의병전투에 아내와 두 아들 모두 바치고도

어금니로 눈물 깨물던 사람

부족한 군자금 구하러 차디찬 러시아 땅을

두 번씩이나 걸어서 그것도 한겨울에 다녀온 사람

독립투쟁의 길에서 동포끼리 싸우고

이간질하며 파벌만 일삼는 무리들에게 크게 호통 친 사람

빈털터리로 군대를 모아서

바람찬 봉오동과 청산리 일대 살살이 뒤져

일본군대 보이는 대로 처단하고 꺾멸시켰던 사람

다른 장군들 백마 타고 위세 뽐낼 때

언제나 부하들과 구별 없는 빛바랜 군복 입고

아버이처럼 다정한 대화 주고 받으며

담배 물주리 뻑뻑 빨던 사람

쫓겨간 러시아 땅 자유시에서

동포들끼리 으르렁거리며 대립하고 반목할 때

분열은 죽음이라며

거의 절규와 통곡으로 막아내려 했던 사람

봉오동전투를 앞두고 산 위에 올라

아, 언제나 내 고향 땅 다시 밝아볼까 눈물지었던만

끝내 조국산천 디더보지 못했던 사람

연해주 동포들에게

떼아닌 압박과 시련의 폭풍 몰아칠 때

일년 내내 사막의 모래바람 부는 중앙아시아

그 가시덤불의 땅으로 무참히 끌려가서

홀로 샷자리 깔고 귀양 살 듯 어두운 빈방 지키다가

돌보는 이 하나 없이 이승을 떠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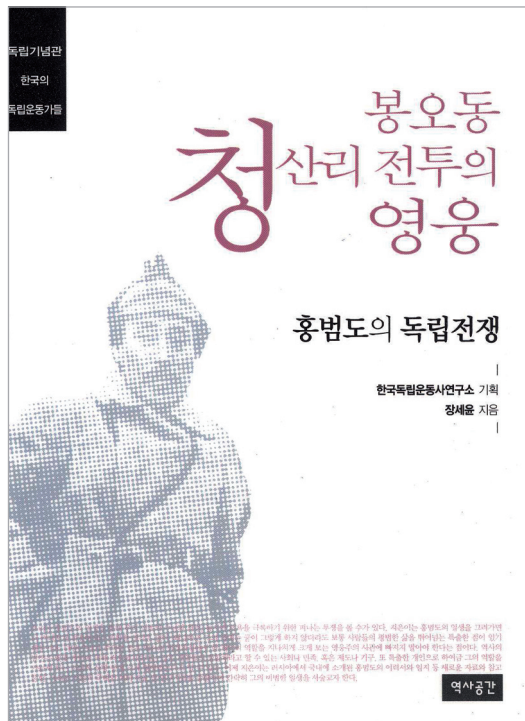
한 많은 사람



〈홍범도장군 저서 소개-3〉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

장 세 윤 지음



〈역사공간, 2007년 1월 17일, 가격 10,000원〉

홍범도는 1900년대 초의 의병전쟁과 1920년대 초반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대표하는 영웅적 인물로 여러 가지 전설적 일화와 함께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홍범도는 일본군이 “날으는 장군(飛將軍)으로 부를 정도로 기민한 유격전술을 구사하여 일본군을 연파하며 크게 명성을 떨쳤다. 당시 함경도 지방의 민중 사이에서 홍범도는 “축지법을 구사하는 신출귀몰한 명장”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이는 그 만큼 그의 활동이 비범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그에 대한 사람들의 성원과 기대가 대단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책은 서론으로 “왜 홍범도인가? 전설적 영웅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섯 개 장과 연보로 구성되어 있다. 여천의 파란만장한 고난과 영광, 그리고 말년에 외롭게 살다간 영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고난의 어린 시절 및 청년기, 함경도 산포수 의병부대를 이끌다가 독립군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한다, 은퇴한 맹호장군, 노년의 홍범도, 홍범도 장군의 명성과 ‘홍범도 대장’이야기” 그리

고 홍범도의 삶과 자취를 상세하게 기술한 연보로 마치고 있다.

특히 3장 “독립군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다”에서 만주·해주에서의 역량을 축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고 독립군을 결성하여 러시아 적군과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만의 대한독립군을 창건하고 국내진입작전을 시도하려고 했다.

여천의 공적은 1920년 6월 대규모 독립군 연합부대를 결성하여 첫 승리한 봉오동 전투이다. 4개월후인 동년 10월의 “길이 빛나는 청산리 독립전쟁에서의 대활약이다. 여천 부대는 김좌진 부대와 같이 청산리 독립전쟁에서 크게 활약하였는데 어떤 면에서 청산리 독립전쟁의 주역은 북로군정서가 아니라 오히려 홍범도와 그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 뿐만 아니라 청산리 전투도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북로군정서의 활약이 부각된 것은 군정서가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홍범도 부대는 임정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대한국민의회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홍범도도 임정과 그리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머슴, 사냥꾼 그리고 노동자 출신의 독립군 사령관 홍범도가 항일무장투쟁의 민족적 명장이며 영웅인 동시에 일반 대중과 병사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아는 덕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홍범도 라는 뛰어난 인물을 사회와 고립된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닌 민족과 사회,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을 아우를 수 있는 21세기 통일된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과 민족대통합하는 데 원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물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반쪽 해방 70주년 및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전승95년 주년을 맞는 2015년 우리는 홍범도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그리워하며 다짐해 봅니다.

반쪽 해방에서 온쪽 해방과 완전한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립투쟁을 해나갈 것을~~ (정리: 홍성덕)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이종찬 (재)우당장학회 이사장은 3월 4일 (수) 신한대학교 신입생 600명을 대상으로 역사에 관련된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날 저녁에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신입생에게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다」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3월 4일자 세계일보 기사에는 3페이지에 걸쳐 「광복·분단 70년 대한민국 다시 하나로」란 머리 기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이우재 고문



이우재 월진회 회장은 지난 3월1일 3.1절을 맞아 한국가곡과 뮤지컬 “광풍의 아침” 주요 곡 등으로 KBS 개관기념 초청공연을 개최한바 있으며, 5월 31일(일) 광복 70주년 기념 국민뮤지컬 “광풍의 아침(매현 윤봉길)”을 KBS홀에서 공연예정이다.

김유진 고문



김유진 고려대학교 4·19혁명기념탑건립위원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중순에 출국하여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멕시코 등 순방하고 동문들에게 4·19정신을 현창하면서 기념탑 건립 모금운동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3월 4일 귀국하였다.

홍헌일 감사



홍헌일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장은 (사)서울문화사학회에서 지난 1월 22일, 롯데시네마 (종로 3가)빌딩 8층 강의실에서 개최한 목요문화강좌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서울의 왕능들”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또한 1월 30일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한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015년도 역사관 추진 사업에서 여사(女舍) 복원 공사를 확정하였다.

김창환 감사



김창환 법무법인 참 대표변호사겸, 국학원 사무총장은, 3월 9일 국학기공 중목 대의원 자격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강당(송파구 올림픽로)에서 개최된 생활체육협의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였다.

손양호 이사



손양호 조계종불교중앙박물관회 회장은 7년 동안 회장임기를 마치고 3월 9일 불교중앙박물관(종로구 견지동)에서 개최된 3월 월례회에서 불교중앙박물관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영철 이사



이영철 4·19포럼 회장은 오는 4월 8일 4·19 도서관(종로구 평동) 강당에서 “4·19정신과 통일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다.

김도경 국장



김도경 한국여성문예원장은 중구청의 후원으로 3월 24일부터 15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중구 구민회관 1층 강당에서 시낭송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김한민감독, ‘봉오동전투’ 올 하반기 제작예정



‘명량’으로 한국영화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김한민 감독이 차기 작품으로 ‘봉오동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 영화계에 따르면 김한민 감독은 최근 ‘봉오동전투’의 시나리오 막바지작업에 한창이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 월강추격대를 무찌르고 크게 승리한 전투이며, 청산리전투와 함께 항일독립운동사를 빛낸 전투로 꼽힌다. 김한민 감독이 준비하는 ‘봉오동전투’는 올 하반기 제작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날으는 홍범도’ 작곡 홍성규 교수, 박사학위 획득



홍성규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장은 지난 1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북한 서정가요의 주제와 음악분석”을 소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 논문은 해방이전부터 2011년까지의 4,219곡에 달하는 북한 서정 가요를 분석한 698쪽에 달하는 논문이다.